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익현, 민간위원장 이춘섭)는 지난달 30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이춘섭 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복지의 각 분야 민·관 전문가인 대표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부안군 사회복지중점사업 차우 실태 조사 결과보고 등 총 2건의 주요안건으로 진행됐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 실천계획으로 '더불어 이룩하는 복지사회 부안'이라는 목표를 4개의 추진전략 및 38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건,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등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협의체 권익현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며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자원봉사자대회 성료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은성수)가 올 한 해 자원봉사에 헌신한 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원봉사센터는 1일 연지아트홀에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정읍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단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한 표창 시상과 자원봉사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곽승기 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자들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온택트 취업 박람회 화제

고창군, 15일까지 지역내 20개 업체 참여 100여명 채용  
온라인 취업 특강... 면접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 고창군이 군 단위 최초 비대면 방식의 취업박람회를 시도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역 20여개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2020고창군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연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뜻이다. 기존 채용박람회는 넓은 공간에 수십개의 기업부스가 나열되어 있고,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채용정보를 얻고 이에 현

장면접을 보기도 한다. 반면 '온택트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취업분야를 찾아가 정보를 획득하고, 비대면 면접교육도 받을 수 있다. 대동고 면접관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급여, 복리후생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구직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많은 장점이 있다.

취업박람회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창군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주소(gochangbookkr)를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구직희망자는 해당 기업 채용영상을 시청 후 온라인을

통해 채용 지원을 바로 할 수도 있다. 이번 박람회에선 '상하농원', '현경전자', '웰빙비엔에프' 등 식품기공과 제조업 등 20개 업체가 참여해 1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을 비롯해 홈페이지와 취업박람회 참여자 중 페이스북 공유이벤트, '컨설팅 참여자 이벤트', '이력서 제출 참여자 이벤트', '면접 참여자 이벤트'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이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과 채용으로 이어져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함께 제작한 고창군 관광 홍보영상은 18일까지 KTX와 KTX-산천간 호남선(상·하행)에 송출된다.

## "고즈넉한 힐링 여행지 고창으로 오세요"

### KTX내 홍보영상 송출 18일까지

(재)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함께 제작한 고창군 관광 홍보영상은 오는 18일까지 KTX와 KTX-산천간 호남선(상·하행)에 송출된다.

홍보영상은 고창읍성을 주제로 고창의 자연과 역사를 30초 분량으로 담아냈다.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고창읍성은 전국에 남아있는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조선시대 자연석 성곽이다.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걸기 좋은 산책로가 있고 매년 고창군 대표 축제인 고창모양성제를 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 송출로 KTX이용객에게 고창의 문화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

여갈 계획이다. 영상은 KTX를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맞춰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됐다. 1개월간 총 112대의 모니터에서 약 88만회가 송출되어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읍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풀버전 영상은 고창문화관광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내 관광사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관광주진 조직(DMO) 심층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연대의 끈을 조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대장정 돌입

정읍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 내년 1월 말까지 진행

정읍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범국민 이웃사랑 운동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가운데 이날 덕천초등학교 학생 13명이 시청을 방문해 성금 2,249,000원을 기탁했다.

## 대통령 표창 고흥렬 · 국무총리 표창 윤현식 대표

### 부안군, 농업인의날 정부포상

부안군은 제7회 농업인의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진수했다. 1일 오전 부안군수 집무실에서 (췍)참프레 고흥렬 대표를 대통령 표창을,

(췍)아리울마켓 윤현식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받았다.

고흥렬 대표는 육계계열회사 운영하며 전라적인 경영과 신상품 개발을 통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이끌어냈으며, 국내최초 동물복지를 실현한 고품질의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은 물론 ICT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방역시스템 기반구축을 지원하여 침체된 육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윤현식 대표는 농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며 온라인 최초 '굳이없는 때'으로 혁신적인 마케팅을 시도해 지역내 중소기업 성장 및 농산물 소비를 증대하고 농산물 유통 노후유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전수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정읍시가 막걸리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막걸리의 전국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소재로 한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력을 불어넣어 쇠퇴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관련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실시하며 민관 상호협력력을 다져왔다.

또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 9월 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화거리 내

창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정읍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구간 내 창업자 모집은 자생능력과 강한 참여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창업자들에게는 공동체 시민참여대회를 거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브랜드 물품 등을 일부 지원해 정읍에서 생산되는 각종 주류를 판매하게 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는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생기가 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막걸리와 그 지역의 명소 먹거리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